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논의' 먹구름

언론단체 불참선언
전문가도 손사래 난항
야, 독소조항 삭제 요구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가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 전망에 벌써부터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취지도 지켜내고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합의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배수진으로 맞서면서 정면충돌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뉴스포털 알고리즘 등 법안들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유엔의 권고사항은 이미 지난 의원 총회때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에 여지를 뒀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 이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엔(UN)과 언론단체가 우려한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3대 조항을 두고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위헌이라 폐기돼야 할 조항"이라며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협의체에 속한 최형두 의원도 "3대 조항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질서 있게 여론을 수렴해서 물러서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8인 협의체의 활동 기한이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까지로 한정된 가운데 구성이 제대로 속도를 낼지도 미지수다.

당장 주요 5개 언론단체가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법안 상정을 늦춘 '회군' 이후 강경 대오를 재정비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언론계 인사들의 참여 없이 강행처리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고민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몫으로 추천할 전문가 2인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각계 인사들이 협의체 참여를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그렇지 않다.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민의힘도 언론계 인사나 언론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2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학자들이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 섭외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과 꾸준히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몫 2명에 강경 친문인 김용민·김종민 의원이 배치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조국 사수 부대원,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언론중재법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비꼰 발언이다. /연합뉴스

한국섬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원장에 오동호 씨

정순관

오동호

전국 3,300여 개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관리를 담당할 '한국섬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가, 초대 원장에는 오동호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이사장과 오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오 원장은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해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목포 삼학도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오는 7일 이사회 창립총회를 열어 설립 등기를 진행, 이달 말 한국섬진흥원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 규탄하는 의원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김승원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인터넷 매체의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 전 검찰총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현장투표 비상

이재명측 "온라인투표로 전환"
이낙연측 "유불리 따른 흔들기"

오는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지역순회 투표를 앞두고 캠프마다 조직 가동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경선은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로 나뉘어 진행된다.

선거인단 중 유선전화 신청자들과 대의원은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이뤄지는 곳에 설치되는 현장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몰려다니는 풍경을 보기는 원천적으로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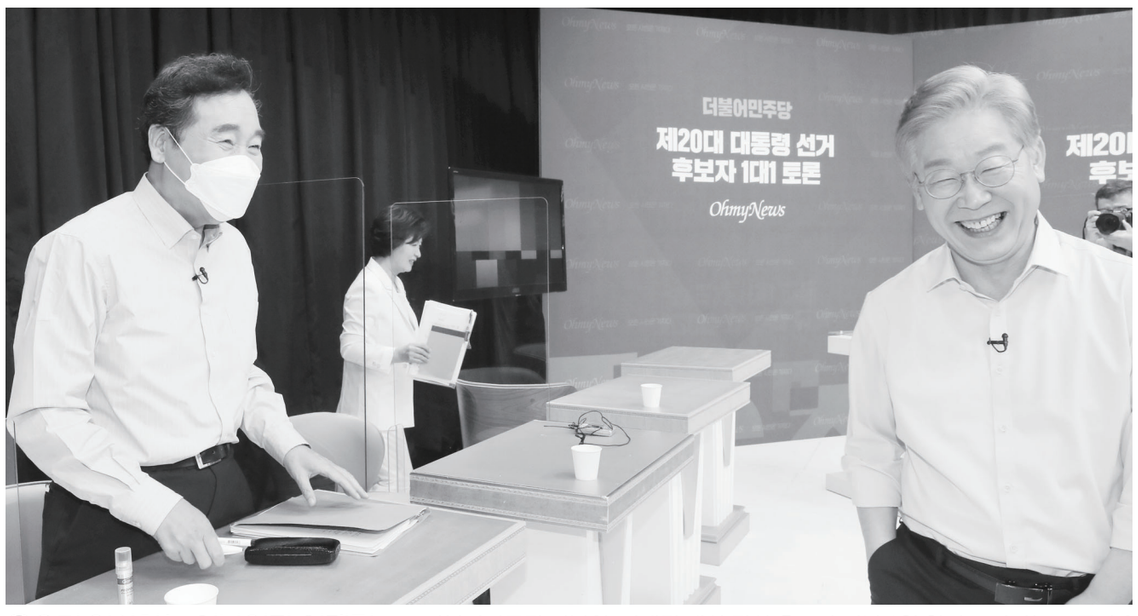
이 때문에 각 캠프는 밑바닥 조직력을 총동원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카풀 등을 활용해 현장을 찾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 투표의 흥행에 물음표가 붙기도 한다.

합동 연설회장의 수용 인원도 제한되기 때문에, 현장을 찾더라도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장 투표자들은 대부분 해당 후보의 열성 지지층인 만큼 어려움이 있어도 방문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온라인 투표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기류도 감지된다.



웃으며 인사하는 이낙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가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관계자는 2일 "현장 투표를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인 만큼 온라인 투표로 전환하자고 당에 요청했으나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만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 수를 따져보면 조직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며 현장 투표를 강행하더라도 불리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 캠프 조승래 대변인도 전날 성명을 내고 "우선 충청권 1차 경선에 한해 대의원 현장 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전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통화에서 "충남의 경우 태안이나 안면도에서는 투표장소인 대전까지 2시간씩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런 주장이 유불리에 따른 흔들기 아니냐고 의심하며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고위 관계자는 "현장 투표를 안 할 거면 지역순회 경선은 의미가 없다"며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윤석열 지지율, 보수 47%·전체 31%

리서치뷰 여론조사

범보수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보수층과 전체 응답자의 지지율이 16% 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수층에서는 응답자의 47%가, 전체에서는 31%가 윤 전 총장을 범보수권 적합 주자로 꼽았다.

두 조사에서 모두 윤 전 총장이 선두였지만 보수층내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보다 16% 포인트 앞서며 뚜렷한 강세를 보인 것이다.

보수층과 전체에서 각각 46%와 30%를 기록한 전주 대비 1%포인트씩 오른 수치다.

홍준표 의원은 전주보다 각각 8% 포인트씩 오른 17%(보수층), 17%(전체)를 기록해 범보수권 주자 적합도에서 윤 전 총장의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의 경우 보수층이나 전체 응답층 내 지지율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홍 의원 다음으로는 지지층에 따라 순위가 엇갈렸다.

보수층 응답자 사이에선 유승민 전 의원(6%)보다 최재형 전 원장(8%) 지지율이 높았고, 반대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최 전 원장(5%)보다 유 전 의원(9%) 지지율이 높았다. /연합뉴스

큐비클 제작·시공전문업체
CUBICLE
[주]중원큐비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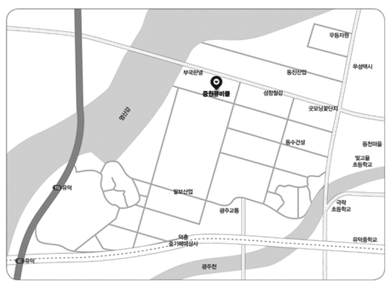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M : 010-3647-3832
F : (062)525-3832 E : jwc3832@nate.com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